

# AI시대의 경고, 생존 위한 '국가의 대전환'



전용호 교수의

龍虎相生 복지이야기

인공지능(AI)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파고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율주행과 햇GPT 같은 기술은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며 각종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인간 노동의 미래와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기술 진보가 고단한 노동을 줄여주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이 살 자리가 좁아진다는 서늘한 경고다.

이러한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일자리의 60% 가 AI의 영향권에 있다고 분석했고, 세계 경제포럼(WEF)은 2027년까지 전 세계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할 것이라 경고했다. 한국은행 역시 국내 일자리의 51% 가 AI 영향권에 있으며, 대체 위협이 큰 '위기 그룹'이 27%에 달한다고 진단했다. 국민 4명 중 1명이 고용 불안에 직면한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고용 지표의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 자본주의와 복지국가를 지탱해온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노동-생산-소득-세금'이라는 견고한 순환 고리 안에서 살아왔다. 인간은 노동으로 소득을 얻고, 기업은 이를 통해 생산하며, 국가는 그 세금으로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를 지탱했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 공식이 통하지 않는다. 로봇과 AI가 생산을 주도하면 인간은 일자리와 소득을 잃고, 소득 감소는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 재정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단절은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기술과 플랫폼을 소유한 소수는 막대한 부를 쌓지만, 노동 소득에 의존하는 대다수 시민은 경제적 기반을 잃게 된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세계 각국은 이미 대안 마련에 분주하다. 유럽연합(EU)은 'AI법'을 통해 기술통제와 노동자 보호에 나섰고, 싱가포르는 '스킬스퓨처'를 통해 전 국민의 직무 전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당면한 경제 현안을 넘어 중장기적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리더십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구조적 개혁을 제언한다.

첫째, 범국가적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삶'

미래보장회의(가칭)를 설립해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과 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독립적인 상설 정책 개발·실행 기구여야 한다. 초당적 협력체로서, 복지·노동·교육 등 사회 부처들이 연합하여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국가 생존 전략을 집행해야 한다.

둘째, 복지 패러다임의 혁신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가 시급하다. 주거·의료·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국가가 뒷받침하는 '보편적 기본 서비스(UBS)'의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디지털세'와 '로봇세'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

셋째,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과거의 주입식 교육으로는 AI 시대를 살아갈 수 없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 창의성,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교육을 대전환해야 한다. 나아가 평생 직장이 사라진 시대에 맞춰, 모든 국민이 생애 주기에 따라 평생 학습 체계를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돋는 도구가 되는 세상. 변화의 시대, 국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넥스트케어(돌봄혁신허브) 대표

## 성장 멈춘 배터리 산업... 남은 것은 체력싸움



기자 수첩

원관희  
(산업부)

전기차(EV) 수요 회복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시간은 '성장'이 아닌 '버티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V 중심 사업 구조가 흔들리는 가운데 대체 시장을 모색하고는 있지만, 어느 쪽도 단기간에 실적을 떠받칠 만큼 확실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은 이 같은 국내 업체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CATL, BYD 등에 비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매출 감소와 영업적자를 동시에 겪고 있다.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 수정과 EV 생산 계획 조정이 이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그 타격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취소와 집행 축소가 있따며 한때 성장 산업의 상징이던 이차전지 벤류체인 전반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올해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간 기준으로도 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배터리 업계의 본격적인 실적 회복 시점을 2027년 전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전략도 공격에서 방어로 바뀌고 있다. 대규모 증설 계획은 축소되거나 연기됐고, 일부 기업은 관련 사업에서 철수했다. 설비 투자와 신규 사업보다는 현금흐름 관리와 고정비 통제가 우선되는 분위기다. '언제 다시 성장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더 현실적인 질문으로 다가왔다.

대체 시장으로 거론되던 에너지저장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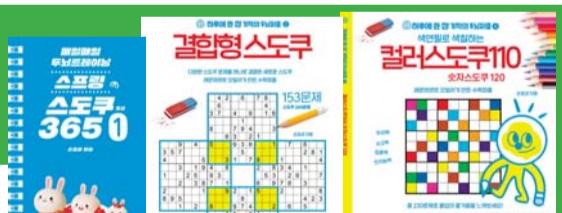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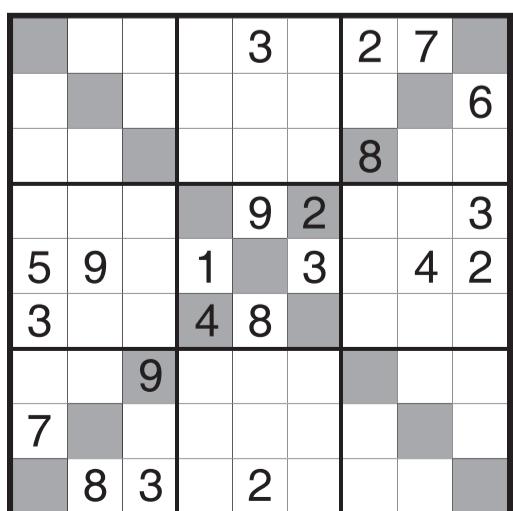
치(ESS) 역시 기대만큼 빠른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글로벌 설치 용량은 늘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배터리셀 수요 역시 급격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V 부진을 단번에 상쇄할 만큼의 규모와 속도를 갖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지금의 배터리 산업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성장 스토리는 잠시 접어두고, 비용을 줄이고 투자를 늦추며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했던 상황이다. 전기차에 대한 보급 확대는 물론 재생에너지 육성에 발빠른 행보가 요구된다. 특히 중국 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을 손놓고 방관자로 머물지 않아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국내업체의 육성에 도움이 되도록 행정당국의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한 때다.

/whk@metroseoul.co.kr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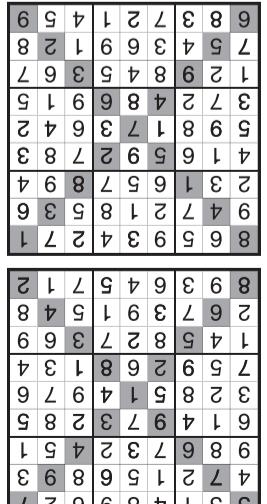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宫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르네이드의 웰드피퍼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활인도서



### 오늘의 운세

1월 14일 (음 11월 2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일이 풀리니 침체하지 말고 능력을 정비. 48년생 먼저 양보하면 나중에 이득이 발생한다. 60년생 소지품 관리에 유의. 72년생 잘 지내는 친구와 여행을 계획해본다. 84년생 역사에 충실이 일어나니 교통사고와 인행에 유의.



37년생 순간 변화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진중하여자. 49년생 상사를 존중해야. 61년생 작은 일에 과민반응은 손실로 연결. 73년생 능력이 적다면 신용으로 주변관계를 형성해보라. 85년생 이웃과의 관계를 돋우기 하여 외로워 마라.



38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수경을 읽어보라. 50년생 성실한 자세가 승진에 유리한데. 62년생 답답해도 인내심을 가져야 할 듯. 74년생 구설수가 있으니 말조심을. 86년생 하기 싫어도 해야 하니 이왕이면 시비를 가지 말고 하라.



39년생 일에 손이 안 잡혀도 진행하면 이득이 발생. 51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63년생 험담을 줄이니 동료와의 관계가 개선된다. 75년생 친절한 이성에게 의심보다는 주관을. 87년생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상담사의 도움을 얻도록.



40년생 도난 우려가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 52년생 폭음은 삼가라. 64년생 남을 헛하기 전에 나의 결점도 찾아라. 76년생 부모님의 돈 요구에 스트레스가 쌓인다. 88년생 부동산에서 이득이 발생하니 빈집에 소 들어온다.



41년생 좋은 정보로 영업에서 이득을 얻는다. 53년생 여행수보다는 공부해서 투자하도록. 65년생 이상에게 친절하지 말아야 문제가 해결될 것. 77년생 상대방이 외화내빈이나 무시하지는 마라. 89년생 평소에 인색하니 언제나 외롭다.



42년생 업무의 능력으로 즐거움이 동반된다. 54년생 과다한 사치로 발등에 돌찍힌다. 66년생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있어 하루가 바쁘다. 78년생 투자는 여유가 있어도 깊이 생각해서. 90년생 무리한 일 처리는 구설을 부른다.



43년생 지난간 인연에 연 연마리. 55년생 현재 위치를 생각하여 남의 힘들하지 않도록. 67년생 평소 쌓아온 신용으로 조력자를 만나다. 79년생 기술연마로 현재의식을 바꾸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91년생 행동반경이 좁아지니 청결하라.



44년생 목돈이 들어오니 소문내지 않도록. 56년생 종교나 정치에 관여 말고 할 일 묵묵히. 68년생 재물로 인한 가정사가 풀린다. 80년생 이득이 적어도 소损대실하지 않도록 하자. 92년생 관계구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전화금융사기 유의.



45년생 6시 지난 친구의 도움으로 일이 해결된다. 57년생 문서문이 있으니 매매에 이득이 발생. 69년생 충동적 여행은 사서 고생한다. 81년생 질투로 초록의 여유가 생기니 인생에서 황금기. 93년생 득과 실을 비교하지만 냉정하지는 말자.



46년생 뜬소문에 휩쓸려서 손재수가 따르니 확인하여 실행. 58년생 회식 자리에서 말조심할 것. 70년생 건강은 젊어서 예방하는 것이 최선. 82년생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 긴장을 가져보자. 94년생 아랫사람에게 굳이 조언할 것 없다.



47년생 소소하게 지출이 많아지나 어차피 나갈 돈이다. 59년생 영업에서 이득이 생기니 힘써라. 71년생 영업은 감정조절을 잘해야 할 것. 83년생 집안의 잡동사니를 정리하여 운을 개선해보자. 95년생 산행 시에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지나쳐라.



## 김상회의四季

### 재테크 성공하려면

